

종교교육학연구 제18권. pp.97~119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6

가톨릭학교교육 이념에 대한 연구 :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金 敬 伊
(가톨릭대학교)



가톨릭학교의 사명은 인간 완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적 교육의 실현에 있다. 가톨릭학교가 교육적 이념을 다 할 때 현행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들이 동의하는 교육이념은 교사로 하여금 동기를 유발하게 하고, 교육활동에 헌신하게 한다. 가톨릭학교의 교육이념은 그 자체로 효과적인 학교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톨릭학교에 대한 주요 교회문헌에 기초하여 가톨릭학교교육의 이념을 고찰하고 교육이념에 대한 가톨릭학교의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한다.

핵심주제어 : 그리스도적 교육, 가톨릭학교의 사명, 가톨릭학교교사의 역할



I. 서 론

학벌위주의 사회, 극심한 교육경쟁,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와 관련한 교육열,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왜곡 등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요한 교육문제들이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는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교육에 대한 가치,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 어떠한 교육개혁도 제도의 변화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어느 때 보다 교육의 이념과 본질, 교사의 철학,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종교계 학교도 예외는 아니

다. 많은 가톨릭계 중등학교들이 가톨릭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간다는 우려가 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로 인해 특히 가톨릭의 중등학교는 타율적이고 무개성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조 영관에 의하면 일반 학교에 대한 제도적인 틀이 가톨릭의 많은 학교들에도 작용하여 가톨릭 교육이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인교육, 종교교육, 사회정의, 평등, 도덕성 실현을 위한 교육, 교육 공동체의 형성 등 중요한 가톨릭의 교육가치들이 외면되면서 일반 사립 중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¹⁾.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강 태중도 우리나라 교육의 맥락에서 가톨릭교육은 그 명맥을 잇기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데 그것은 학교교육을 둘러싼 일반적인 교육 관념이나 학교교육의 운영을 규정하는 공식적인 틀이 모두 가톨릭학교 교육의 입지를 좁히고 있기 때문이고, 세속적이며 표준화된 교육형식과 내용을 벗어나 독특한 가톨릭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이 사립학교로서의 가톨릭학교에 거의 열려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²⁾.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 요건으로 인해 한국의 가톨릭학교가 가톨릭학교답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미 그러한 노력들이 있다.³⁾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학교의 교육이념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가톨릭학교의 교육이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가톨릭학교 구성원들의 학교교육 이념에 대한 인식 현황을 조사하였다. 학교교육의 이념은 학교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교육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어 성공적인 교육활동의 원인이 된다. 성공적인 학교는 공동의 목적에 대한 합의가 있고 개인적 욕구가 학교의 집단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성공적인 학교란 우선 목표와 바람직한 실천 행동을 통하여 스스로 좋은 교육(good education)을 정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덕적인 면에서 전쟁에 해당하는 것을 실천하는 학교이다. ⁴⁾ 즉 성공적인

1) 조영관.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의 역사>,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편, 《한국의 가톨릭학교교육》, 1999, 55쪽.

2) 강태중. <교육개혁과 가톨릭 학교교육>,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편, 《한국의 가톨릭학교교육》, 1999, 141쪽.

3) 2002년 발족한 <학교교육개혁을 위한 연구>는 우리의 학교는 어떠한 철학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어 우리의 교육을 스스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3년 발족한 <가톨릭학교교육 포럼> 은 가톨릭학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톨릭학교교육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연구 모임이다.

4) Glickman, C. D. *Supervision of Instruction: A Developmental Approach* 2nd edition, 1990, 최희선, 윤기옥(역), 수업장학탐구: 발달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2000.

학교에서 교육은 개인적인 일이 아닌 집단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개별적인 교육 활동이 학교의 교육이념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이념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톨릭학교교육의 이념에 대한 연구는 그 의의가 가톨릭학교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학교가 가톨릭학교다울 때 가톨릭학교는 공립학교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⁵⁾받고 있는데, 효과성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톨릭학교의 교육이념이기 때문이다. 성기선은 콜먼과 호퍼 (Coleman & Hoffer), चु브과 모어(Chubb & Moe)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종교적인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가톨릭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⁶⁾. 즉 가톨릭학교는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가정에서 얻지 못하는 사회적 후원을 학교를 통해서 보완해주는

- 5) “오늘날 영국과 웨일즈의 가톨릭계 학교들은 학교교육의 성공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 학업 성취를 위시로 학교의 성공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지역에서 가톨릭 학교들은 수용인원이 가득 차고 학문적 성공과 좋은 훈육 그리고 진지한 영적 그리고 도덕적 교육으로 좋은 평판에 매력을 느낀 부모들은 자녀를 가톨릭 학교에 보내려 하고 있다. “오늘날 가톨릭 학교는 학문적으로 좋은 결과에 의해서 뿐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가톨릭 학교가 그들 자녀들의 우리 사회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흐름에 젊은이들이 노출되었을 때 생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기통제, 도덕적 발달함, 그리고 정신적 성숙함을 길러주는 데 기여한다고 믿고 있어 점점 대중적이 되어 가고 있다.” (Hume, B. 'The Church's Mission in Education', in Parents Mission: a collection of talks by Bishops on issues affecting Catholic education, London: Catholic Education Service, 1997, 25-6을, pp25-6을 Grace, 2002, p3에서 재인용)

Coleman, Hoffer & Kilgore(1982)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특히 가톨릭학교와 공립학교 간에 존재하는 학교효과의 차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① 동일한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보다는 가톨릭계 학교에 다니면서 기초적인 인지적 능력(읽고, 이해하기, 어휘력, 수리능력 등)에서 높은 성취수준을 보인다. ② 공립학교보다 가톨릭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대한 포부수준이 높다. ③ 공립학교에서 보다 가톨릭계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정배경이 학업성취도 수준과 대학진학 포부수준이 결정되는 정도가 약하다. ④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학업성취도 수준과 포부수준의 격차가 입학 당시 보다 학교를 다닐수록 더 벌어지는 반면에 가톨릭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 사이의 성적과 포부수준의 격차가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가톨릭학교는 공립학교보다 교육의 질적인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평등화 실현에도 더 많이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는 있으나 대부분 가톨릭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교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 6) 성기선, <미국의 가톨릭 학교교육과 교육개혁 정책>,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편, 《한국의 가톨릭학교교육》, 1999, 169쪽.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독특한 종교적 공동체 문화를 통해서 학생들 간의 성취 수준 격차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⁷⁾ 또한 चुप्과 모어(Chubb와 Moe)에 의하면 가톨릭학교는 비교적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운영에 관련되는 각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공립학교와 비교해 보면 학교의 효과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가톨릭학교는 교육의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평등화의 기능에 있어서도 공립학교보다 우월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학교의 운영방식, 운영철학, 문화적 요인에 기인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가톨릭학교의 교육이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반 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두 번째, 학교교육이념에 대한 헌신은 교사의 동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그리고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교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성공적으로 일하게 하고 무엇이 그들을 성공적으로 동기화 하는지 찾아내어야만 한다. 동기화와 관련되는 많은 요인이 있으나 학교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대한 동의와 헌신은 동기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학교평가를 위한 지표에서 구성원들이 교육이념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서지오바니(Sergiovanni)⁸⁾는 로티와 존스(Lortie & Johnson)의 연구를 인용하여 전문성(profession)을 향한 헌신에 이타주의의 감정이 스며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티(Lortie)의 연구는 사람들이 다른 이를 섬기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그 직업자체를 즐기기 위해,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 학교 일정 때문에 전문성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며, 존스(Johnson)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소명, 미션, 전문적, 사회적, 종교적 이상에 대한 헌신 또는 관여가 전문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요인으로 들고 있다⁹⁾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톨릭학교교육에 대한 세 편의 교회문헌¹⁰⁾에 기초하였다. <그리스도적 교육에 관한 선언: DECLARATIO DE EDUCATIONE CHRISTIANA - GRAVISSIMUM EDUCATIONIS>은 1965년 12월에 발표된 문헌으로 교육에 대한 인간의 권리, 그리스도적 교육, 교육책임자, 그리스도적 교육의 다양한 방법,

7) 위의 글 169쪽에서 재인용.

8) Sergiovanni, T. J., *Moral Leadership: Getting to the heart of school improvement*. San Francisco : Jossey-Bass. 1992.

9) Beerens, D. R. *Evaluating Teachers for Professional Growth*, Sage Pub: California. 2000, p.23.

10) 세편의 교회문헌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 의해 번역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http://www.cbck.or.kr>

학교의 중요성, 부모의 권리와 의무, 모든 학교의 도덕 종교교육, 가톨릭학교, 다양한 종류의 가톨릭학교, 가톨릭대학과 학부, 신학부, 학교간의 협력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가톨릭 학교의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¹¹⁾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교황청 교육성령>은 1977년 3월 발표된 교황청 문헌으로 <그리스도적 교육에 관한 선언>을 발전시킨 것으로 가톨릭학교에 관해 보다 깊이 다루고 있다. 주 내용은 교회의 구원사명과 가톨릭학교, 가톨릭학교의 당면 문제, 인간 형성의 중심기관으로서의 학교, 가톨릭학교의 교육활동, 현대 가톨릭학교의 오늘, 가톨릭학교를 위한 실천적 지침과 목적에 부합되기 위한 투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신앙의 증인들: 교황청 교육성령>은 1982년 10월 발표된 문헌으로, 총 82개 항에 걸쳐 가톨릭 평신도 교육자의 역할과 신원 그리고 소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문헌에 근거하여 가톨릭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가톨릭학교교육의 목적과 사명, 교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가톨릭학교교육

1. 그리스도적 교육이란?

가톨릭학교는 그리스도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며, 모든 그리스도 신자는 그리스도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스도적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적 교육이란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인간의 완성 추구’와 함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성세를 받은 사람이 차차 구원의 신비를 인식하도록 인도되면서 받은 신앙의 은혜를 나날이 더 잘 의식하게 한다. 특히 전례 행위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써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자기 생활을 정의와 참된 성덕 안에 조성된 새로운 인간을 따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연세(年歲)의 풍부한 분량에 이르는 완전한 인간이 되며, 신비체의 발전에 진력하며, 더욱이 자기의 소명을 자각하여 그들 안에 있는 희망

11) Grace Gerald, *Catholic Schools: Mission, Markets and Morality*, Routledge Falmer: London and New York, 2002, p.17.

을 증거하고 동시에 세상의 그리스도敎化를 돕는 데 익숙하게 된다. 참으로 그리스도敎化로 말미암아 자연적 가치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된 인간의 전체적인 고찰에 취해짐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에 공헌하게 된다.”¹²⁾

즉 그리스도적 교육의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성세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신비와 신앙의 은혜를 더 깊이 인식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둘째, 세상 안에서 희망을 증거하고 동시에 세상의 그리스도敎化를 위해 살도록 돕는 것이다. 전례를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을 배우고 삶을 통해 정의와 거룩한 생활로서 자기의 소명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실천하는 교육은 그리스도적 교육이라 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교육권리

가톨릭교회는 현대 사회의 인간 생활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이 인간의 중요한 권리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¹³⁾. “어떠한 민족, 신분, 연령의 차이를 불문하고 사람은 다 존엄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교육에 관하여 타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그 본연의 목적에 상응하며 그 재능과 성별, 그리고 그 문화와 조상으로부터의 전통에 순응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와 또한 동시에 지상에 참된 일치와 평화를 촉진키 위해 타민족과의 형제적 교류에로 개방된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참된 교육은 인간의 종극(終極) 목적을 위해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공동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명 달성에 협력해야 하므로 공동 사회의 복지를 위해 인간의 인격 형성을 추구한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있어 심리학, 교육학, 교수학의 진보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육체적, 도덕적, 지적 부분이 조화롭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이를 위해 국가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청소년의 신성한 권리 즉 교육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교육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첫째, 인간은 모두 존엄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둘째, 전통에 순응하는 교육에 대한 권리, 셋째, 일치와 평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민족과의 형제적 교류 및 개방된 교육에 대한 권리, 넷째, 인간의 인격 형성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 다섯째, 청소년은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도록 권장 받을 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2)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2항

13)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1항

3. 부모, 국가, 교회의 권리와 의무

청소년에게 보장된 교육권은 부모, 국가, 교회의 권리와 의무로 연결된다.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학교를 선택하는 참다운 자유를 가져야 하며 국가¹⁴⁾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기 양심에 따라 참으로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적 보조금이 수여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⁵⁾. 부모의 의무로서 “자녀의 개인적 사회적 전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바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신심으로 찬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양친의 의무로 밝힌다. 즉 가정은 아이들이 만나는 최초의 교육의 장으로 건전한 인간사회와 교회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부모를 통해 인간의 시민사회와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서서히 인도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양친과 교육에 종사하는 여타 사람들의 의무와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양친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공공의 복지가 요구하는 한 학교와 교육시설을 설립하는 것 등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¹⁶⁾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선택에 대한 공적 보조금이 수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문화적 혜택이 차별 없이 돌아가도록, 학생의 복지를 고려하여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개별 인간의 존엄성, 다원성에 기초하여야 하며 교육활동을 학교가 독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는 “교육능력이 있는 인간적 공동체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특히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통해 주며 그들이 생명의 충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려함으로써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4. 현대사회와 학교

교회는 현대사회가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달은 이루었으나 이에 따른 비인격화와 사고방식에 문제가 야기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대의 변화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을 비판한다. 그러므로 학교의 중요한 임무

14) 원문에는 “국민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公權은 분배 정의에 의해” 라고 제시되어 있다.

15) 그리스도적 교육에 관한 선언 6항

16) 그리스도적 교육에 관한 선언 3항

는 책임감 있고 내면을 중시하며 자기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줄 아는 인간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학교교육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전인적 존재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여 내면으로부터 인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다.¹⁷⁾ 그러므로 학교교육의 출발은 전체 인격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향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특히 학교의 공식 임무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 영성적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윤리적 차원을 정립해내는 일이며 인간의 심리적 자유를 보완할 도덕적 자유를 획득하도록 인간을 돕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⁸⁾

이를 위해 ‘학교는 지적 가치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장소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체로서 학교일 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공동체의 가치는 성원들 간의 대인적이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학교 전체에 흐르는 인생관에 호흡을 함께 하는 점착을 통해서 보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5. 가톨릭학교에 대한 기대와 권고

1) 가톨릭학교의 특수성

가톨릭학교의 특수성은 교육의 출발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데 있다. 가톨릭학교의 전제는 “인간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았다는 사실이다.”²⁰⁾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제 34항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 사업 전체의 토대가 되신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복음에 의거하여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의지를 영위하고, ‘참된 행복’을 인생규범으로 삼게 만든다. 학교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이 개개인의 고유한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교적 안목을 가질 때 그 학교는 ‘가톨릭’ 학교가 된다. 그리하여 가톨릭 학교는 전인(全人)의 발전에 투신한다. 이것은 완전한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가치(人間價値)들이 완성과 통일을 보는 까닭이다. 여기에 학교의 가톨릭적 특수성이 존재한다.”²¹⁾

그러므로 가톨릭학교는 그리스도 신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 갈

17) 가톨릭학교교육에 관한 지침 29항

18) 가톨릭학교교육에 관한 지침 30항

19) 가톨릭학교교육에 관한 지침 32항

20) 가톨릭학교교육에 관한 지침 36항

21) 가톨릭학교교육에 관한 지침 34항

수 있게 하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덕목을 함양시킨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전제는 가톨릭학교의 임무와 정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준다.

2) 가톨릭학교의 사명

<가톨릭학교교육에 관한 지침>에서는 가톨릭학교를 교육 분야에서 그리스도교 가치들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이는 장소로 규정하면서²²⁾ 가톨릭학교의 사명을 근본적으로 문화와 신앙의 통합이며, 신앙과 생활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²³⁾ 이때 ‘통합’이 각 과목을 신앙의 부수적인 과목으로 간주하거나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과목의 운영은 학생으로 하여금 기술, 지식, 지적인 방법, 도덕적, 사회적 자세를 습득하게 하는 방향으로 교수되어야 하며, 이 모든 요소들이 학생의 인격을 발달시키고 학생으로 하여금 인간 공동체의 능동적 성원이 되는 데 도움이 되게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²⁴⁾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에서는 가톨릭학교의 고유한 사명을²⁵⁾ 자유와 사랑의 복음적 정신으로 충만한 학교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청소년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키는 것, 성세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 세계, 생활, 인간에 대해 습득하는 지식이 신앙으로 바쳐지도록 돕는 것,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봉사하도록 준비시키는 것, 교회와 인간사회 상호간의 유익을 위해 양자의 대화에 기여하는 것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주교회의는 1972년 가톨릭학교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²⁶⁾ 교회의 교육적 미션은 다음의 상호 연관된 영역을 통합하는 것으로 하느님에 의해 드러난 메시지를 교회가 선포하는 일(Didache), 성령과 함께 하는 친교(Koinoia), 그리스도 공동체와 전 인류 공동체에 봉사(Diakonia)하는 것을 가톨릭학교의 역할로 밝히고 있다.

위의 문헌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가톨릭학교의 사명은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가톨릭교리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유라는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2) 가톨릭학교교육에 관한 지침 53항

23) 학교 내 가톨릭 평신도의 역할 37항

24) 학교 내 가톨릭 평신도의 역할 39항

25)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8항, 학교 내 가톨릭 평신도의 역할 38항

26) McDermott. E. J. *Distinctive Qualities Of The Catholic School*, National Catholic Educational Association. 1997, p1.

3) 가톨릭학교 교사의 역할

(1) 교사의 역할

가톨릭학교가 사명을 실현하는데 있어 교사의 역할과 구성원들의 사명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가톨릭학교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학과목이나 방법론 보다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교사에 의해 전수되며 문화와 신앙의 통합도 결국에는 교사의 인품에 이미 실현되어 있는 문화와 신앙의 종합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²⁷⁾ 그러므로 “교사는 가톨릭계 학교가 그 목적과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얼마나 그들 자신들에게 달려 있는지를 명심해야 한다.” “그리스도교 지혜에 충만하고 맡은 바 학과목에 숙련된 교사는 자기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내용 그 이상의 것을 전달해 준다. 자기의 강의를 초월하여 그는 학생들을 자기의 말 뒤에 계시는 온전한 진리이신 분의 마음속으로 인도하는 것이다.”²⁸⁾

또한 교회는 교사 양성과 교사의 의무와 권리 보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신도 교사들은 전례, 聖事生活에 참여해야 하며, 영적 지도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비가톨릭신자 학생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기 때문에 교사의 모범으로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을 권고한다. 풍부한 교회생활의 재현, 지역교회 사목 생활에의 가담, 수도자 교육자의 감소에 대한 대비 등도 교사의 중요한 역할로 언급하고 있다.

이상적인 가톨릭 평신도 교육자란 가능한 최대한의 전문적 자질과 신앙을 갖추어 전인교육을 위해 학생들과의 직접적 친교관계를 강조하는 교수법을 구사하면서 문화를 전달해 나가고 자기가 속한 교육공동체와 나아가 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주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2) 교사를 위한 평생교육 촉진²⁹⁾

교회는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재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학교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평신도 직원들의 계속적인 직업적 및 종교적 양성에 대한 확고한 배려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³⁰⁾ 특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위한 시간 배당, 학교 간 협력, 협의회, 세미나 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27) 학교 내 가톨릭 평신도의 역할 43항

28) 학교 내 가톨릭 평신도의 역할 41항

29) 학교 내 가톨릭 평신도의 역할 79항

30) 학교 내 가톨릭 평신도의 역할 79항

서 교사들로 하여금 학교의 사명을 실천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이 경우 반드시 가톨릭학교에 소속된 교사 뿐 아니라 다른 가톨릭적 평신도 교육자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 학교 간 협력, 가톨릭 가정과 학교와의 협력

가톨릭학교가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교사의 협력은 중요하다. “가톨릭 신자 양친은 시간과 장소가 허락하는 한 자녀를 가톨릭계 학교에 위탁하고 할 수 있는 한 학교를 원조하며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학교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³¹⁾ 교회는 다원적 문화에서 자신의 목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제도의 다원성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즉 문화적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 있어서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청에 호응하기 위해 교회는 다양한 교육기관의 공존과 가능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³²⁾ 즉 가톨릭학교는 목적을 다하기 위해 가정, 본당, 그리스도교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 등 다른 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³³⁾

5)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

가톨릭학교가 그 사명을 다하고 가톨릭학교답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생활의 가치를 전수하는 일을 목표로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³⁴⁾ 학교의 사업과 활동은 모든 가치가 그분에게서 완성을 보는 그리스도와의 신앙의 관계를 조성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보다도 일상생활로 신앙을 증거 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주로 배양된다. 사실상 그리스도교 신앙이 낳고 자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이다.³⁵⁾ 가톨릭학교가 공동체의 성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거나 어느 학교에서나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의 성격 때문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격 때문이다.³⁶⁾

6) 가톨릭학교의 당면 문제에 대한 인식³⁷⁾

31)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8항

32)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13조

33)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48항

34)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53항

35)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53항

36)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54항

교회는 가톨릭학교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한국의 가톨릭학교에 대한 인식에도 적용되는 바이다. 교회는 가톨릭학교에 대해 제기되는 반론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며 각각의 반론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교회외의 기관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세속사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잘못 이해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즉 “가톨릭학교의 교사들이 평신도로서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자로서 가톨릭 평신도는 학교 공동체 안에서 세속적 소명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전문적 자질과 인격의 전인적 양성을 위하여 학생들과의 친교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신도인 교육자들은 교회의 성화하는 사명과 교육적 사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톨릭학교도 학교인데 학교라는 인간적인 기구를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 이에 대해 물론 그리스도 교육이 개종을 위한 접근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그리스도교 교육자들이 그리스도교 교육의 성격과 방법을 오해할 때에만 생긴다고 응답한다. 왜냐하면 “완전한 교육은 필연적으로 종교교육을 내포하며, 이는 인격의 다른 측면의 발전에 매우 효과적인 기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시대에 가톨릭교회가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실제로 국가의 교육 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당면하여 “가톨릭학교도 교회 공동체 성원들의 원의에 상합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응답한다.

넷째, “가톨릭학교의 교육은 부유한 계층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 라는 반론이 있다. 이는 “다원적인 사회 안에서 가톨릭학교가 달리 활동하는 데서 초래될 이점을 신중하게 배려하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고 본다. 즉 단기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반론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과연 가톨릭학교의 교육적 성과가 있는가?” 라는 반론이 있다. 가톨릭 학교는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에서 자기 위치를 감당할 소신 있고 확고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양성해내는 역량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젊은이에게 인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교육활동의 결과를 긴 안목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톨릭학교의 사명은 복음 정신으로 충만한 학교 공동

체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이 자기 인격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 학생이 세계, 생활, 인간에 대해 습득한 지식이 신앙 안에서 조망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러한 사명의 실천에 가톨릭학교의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들이 학교교육의 이념과 목적을 얼마나 인식하고 또 실천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즉 가톨릭학교에 종사하는 평신도들은 가톨릭학교의 이상과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투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속 학교의 특유한 성격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이 특수성과 일치하여 자기 자신의 일이 그 학교의 특수한 본질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³⁸⁾ 그러므로 교사를 위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학교의 사명은 공동체로서 가톨릭학교로 살아갈 때 실현될 것이므로 가톨릭학교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가톨릭학교에 대한 이러한 역할 기대에 기초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가톨릭학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Ⅲ. 가톨릭학교 구성원들의 교육이념 인식 현황

1. 조사대상 및 방법

가톨릭학교 구성원들의 교육이념 인식 현황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가톨릭계 학교는 취학 전 26개교, 특수학교 5개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38개교, 대학교 11개교 총 103개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조사 대상이 된 학교는 가톨릭 중등학교로 10개교를 표집하여 교장, 교사를 대상으로 2004년 2월 20일에서 4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2004년 1월 3일에서 4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후 사용하였다. 배포한 설문지는 500부이며 회수된 부수는 297부이다.³⁹⁾ 응답자의 유형별 분포는 다음 <표 1> 과 같다.

조사 결과 응답자 개인별 특성, 학교 설립 주체 별 특성에 대한 차이에 있어 유

38)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40명

39) 회수된 설문지는 297부이나 문항에 따라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를 제외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므로 문항에 따라 응답자에 차이가 있다.

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현황에 대한 기술은 전체적인 응답의 분포만 기술하도록 한다.

2. 교육이념 인식 현황

1) 교육 이념과 목적 인지

가톨릭학교 구성원에게 ‘소속 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20.9%의 교사가 ‘매우 잘 안다’, 60.3%는 ‘잘 안다’라고 응답하였고 ‘잘 모른다고 응답한 교사는 2.3%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설립 주체의 교육 이념 또는 카리스마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64.4%의 교사가 ‘매우 잘 안다’와 ‘잘 안다’에 응답하였고, 8.2%의 교사는 ‘잘 모른다’라고 응답하였다. 가톨릭학교교육의 보편적인 사명에 대한 질문에서 54.9%의 교사가 ‘매우 잘 안다’와 ‘잘 안다’에 응답하였다. 소속 학교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잘 인지하고 있었으나 학교 설립 주체, 상위의 보편적인 교육 사명에 대한 인지도는 소속 학교 인지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응답자의 유형별 분포

단위:명(%)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	169	56.9	종교	가톨릭	208	70.3
	여	128	43.1		기독교	21	7.1
	계	297	100.0		불교	6	2.0
교직경력	5년 미만	56	18.9		없음	55	18.6
	5년 이상~10년 미만	43	14.5		기타	7	2.0
	10년 이상~15년 미만	50	16.8		계	297	100.0
	15년 이상~20년 미만	52	17.5	신자유형	평신도	187	87.8
	20년 이상	96	32.3		수도자	25	11.7
	계	297	100.0		성직자	1	0.5
					계	213	100.0
보직	교사	219	73.7	학교설립유형	교구소속	181	63.7
	부장교사	66	22.2		수도회소속	100	36.3
	교감	7	2.4		계	281	100.0
	교장	5	1.7				
	계	297	100.0				

<표2> 교육이념과 목적 인지 여부

단위: 명(%)

내용 \ 구분		매우 잘 안다	잘안다	보통 이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계
교육 이념과 목적 인지	1. 교육이념과 목적	62 (20.9)	179 (60.3)	49 (16.5)	6 (2.0)	1 (0.3)	297 (100.0)
	2. 설립주체의 교육이념 또는 카리스마	40 (13.6)	150 (50.8)	81 (27.5)	22 (7.5)	2 (0.7)	295 (100.0)
	3. 가톨릭 학교교육의 보편적인 사명	20 (6.7)	146 (49.2)	116 (39.1)	15 (5.1)	0 (0.0)	297 (100.0)

2) 교사 개인과 학교 교육 이념과의 관계

학교교육 이념과 개인 삶의 지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82.1%의 응답자는 ‘학교가 강조하는 교육 이념과 목적에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44.6%의 교사는 ‘학교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일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가톨릭학교교육 이념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72.3%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그러나 학교 선택과 재직에 종교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교사는 43.9%였고, 37.2%의 교사는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 표 3 >

교직 수행과 신앙생활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교육 이념과 개인의 지향은 분리 될 수 있는가’에 대해 51.2%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44.2%는 ‘학교 이념 달성 방법에 대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톨릭학교에서 가톨릭 교육이념 강조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14.3%에 그쳤으나 39.9%는 ‘신앙과 교직수행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4>

<표 3> 교사 개인과 학교 교육 이념의 일치

단위: 명(%)

내용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교사 개인과 학교 교육 이념의 일치	1. 학교의교육이념과 목적에 동의	34 (11.5)	209 (70.6)	50 (16.9)	1 (0.3)	2 (0.7)	296 (100.0)
	2. 학교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목적과의 일치	7 (2.4)	124 (42.2)	134 (45.6)	28 (9.5)	1 (0.3)	294 (100.0)
	3. 가톨릭학교교육의 이념이	37	177	67	15	0(0.0)	296

	반영된 교육과정운영	(12.5)	(59.8)	(22.6)	(5.1)		(100.0)
	4. 본교 선택과 재직에 있어 신앙적인 요인의 작용	32 (10.8)	98 (33.1)	56 (18.9)	87 (29.4)	23 (7.8)	296 (100.0)

< 표 4 > 교육이념 동의 관련

단위: 명(%)

내용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 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교육 이념 동의 및 분리	1. 교직과 신앙생활의 분리 가능성	16 (5.4)	135 (45.8)	56 (19.0)	65 (22.0)	23 (7.8)	295 (100)
	2.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이념 성취	18 (6.1)	112 (38.1)	101 (34.4)	59 (20.1)	4 (1.4)	294 (100)
	3. 학교교육에서 가톨릭교육 이념 강조는 부적절	2 (0.7)	40 (13.6)	76 (25.8)	140 (47.5)	37 (12.5)	295 (100)
	4. 신앙과 교직의 수행은 분리되어야 함	17 (5.7)	118 (39.9)	72 (24.3)	70 (23.6)	19 (6.4)	296 (100)

가톨릭교회는 가톨릭학교교육의 이념이 교사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가톨릭학교의 사명인 문화와 신앙의 통합도 결국에는 교사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소속 학교의 이념을 인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교육이념을 얼마나 실천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반적인 동의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교직을 수행하는 것과 신앙은 분리될 수 있고 또 분리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비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약 45%의 응답자가 신앙과 교직 수행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24.3%이고, ‘신앙과 교직 수행은 분리되어야 한다’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가톨릭학교 교사의 사명과 역할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톨릭학교의 사명에 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57.4%이며, 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는 23.0%, ‘잘 모르

겠다'고 응답한 교사는 17.6%였다. 가톨릭학교 사명에 관한 교육은 주로 '학교 연수회(47.8%)'를 통해 이루어졌고, '학교의 공식적 모임'을 통해서는 22.8%, '학교의 비공식적 모임'에서는 10.0%, '교회' 8.3%, '서적'을 통해 교육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였다. '가톨릭학교교육과 관련한 교회 문헌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81.4%는 관련 문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중 17.0%만이 '연수를 통해' 다루어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25.1%는 '한 번 읽어 본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39.4%는 '관련 문헌이 있음을 아는 정도'였다. <표 6> 가톨릭학교의 사명과 별도로 '가톨릭학교의 교사로서 사명에 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42.9%가 '(매우)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7.3%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교사교육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은 40%였고, 40.9%는 '보통이다'고 응답하였으며, 19.6%의 응답자는 부정적이었다. '가톨릭학교 사명에 대한 교육은 신자인 교사에게 제한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4.2%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60.9%의 교사는 반대 의견을 답하였다. <표 7>

<표 5> 가톨릭학교 사명에 관한 교육 관련

단위: 명(%)

	내용	인원(명)	비율(%)
가톨릭학교 사명에 관한 학습경험	있다	170	57.4
	없다	68	23.0
	잘 모르겠다	52	17.6
	기타	6	2.0
	계	296	100.0
가톨릭학교 교육사명에 관한 학습 형태	학교 공식모임	41	22.8
	학교 연수회	86	47.8
	학교 비공식모임	18	10.0
	교회	15	8.3
	홍보자료 및 관련 서적	8	4.4
	기타	12	6.7
	계	180	100.0

<표 6> 가톨릭학교 교육 관련 교회 문헌 인지 여부

단위: 명(%)

	연수에서 다뤄 알고 있음	한번 읽어본 정도임	관련문헌이 있음만 앞	들은 적이 없음	기타	계
인원(명)	44	65	102	45	3	259
비율(%)	17.0	25.1	39.4	17.4	1.2	100.0

<표 7> 가톨릭학교 교원의 사명 인지와 교사교육에 대한 의견

단위: 명(%)

	매우 그렇다	잘 안다 (그렇다)	보통 이다	잘 모른다 (그렇지 않다)	전혀 모른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가톨릭학교 교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인지	20 (6.8)	106 (36.1)	139 (47.3)	29 (9.9)	0 (0.0)	294 (100.0)
가톨릭학교 교원인 경우 가 톨릭학교와 관련된 문헌을 통 한 연수와 교육활동에 대한 인식	18 (6.1)	99 (33.4)	121 (40.9)	56 (18.9)	2 (0.7)	296 (100.0)
가톨릭학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연수 참여 대상은 가톨 릭 신자 교사로 제한	8 (2.7)	64 (21.5)	41 (13.8)	156 (52.5)	25 (8.4)	297 (100.0)

4) 교육활동과 소속감

교육활동과 소속감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가톨릭학교 교육이념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40.5%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답함으로써 개별 교사의 재량 권한 범위 내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톨릭학교교육 이념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내에 고유한 의식, 행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85.4%의 교사가 ‘고유한 행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한 ‘고유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일원이라고 느끼는가’에 대해 교사는 61.5%가 ‘매우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4%의 교사는 ‘행사를 통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느낌을 갖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구성원간에 교육이념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41.1%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나 21.9%의 응답자는 ‘가톨릭학교 교육이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

우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교육 목표가 교사 활동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39.9%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46.4%는 '보통이다', 13.7%는 '(전혀)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었다. '학교 구성원 간에 학교 운영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30.5%는 '(매우)그렇다', 42.8%는 '보통이다' 26.7%는 '(전혀)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비신자의 경우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약하다'고 한 경우는 응답자의 9.8%에 불과하였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였으며 51.0%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학교 경영 참여에 있어 가톨릭신자에게 참여 기회가 많거나 의사 반영이 잘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는 23.9%였으며, 27.3%는 보통, 48.8%는 '(전혀)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종교적인 이유가 교직 수행에 어려움을 주는가'에 대해 응답한 교사는 10.9%였으며, 69.0%는 '(전혀)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이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20.0%는 갈등이 있다고 답하였고, 32.7%는 보통이라고 답하였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는가' 대해서는 54.6%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갈등 자체를 부정한 응답자는 17.4%였다. <표8>

<표 8> 교육활동과 소속감

단위: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1. 가톨릭학교교육이념의 교육과정 반영	8 (2.7)	112 (37.8)	127 (42.9)	47 (15.9)	2 (0.7)	296 (100)
2. 우리 학교만의 고유한 교육활동, 의식, 행사	44 (14.9)	208 (70.5)	37 (12.5)	6 (2.0)	0 (0.0)	295 (100.0)
3. 교육활동, 의식, 행사를 통한 학교공동체의 소속감	18 (6.1)	164 (55.4)	98 (33.1)	15 (5.1)	1 (0.3)	296 (100)
4. 가톨릭학교교육이념에 관한 이야기	5 (1.7)	117 (39.4)	110 (37.0)	60 (20.2)	5 (1.7)	297 (100)
5. 교육활동 수행에 있어 학교교육 이념의 역할	11 (3.8)	105 (36.1)	135 (46.4)	37 (12.7)	3 (1.0)	291 (100)
6. 학교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9 (3.1)	80 (27.4)	125 (42.8)	66 (22.6)	12 (4.1)	292 (100)
7. 비신자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참여의 제한	8 (2.7)	62 (21.2)	80 (27.3)	115 (39.2)	28 (9.6)	293 (100.0)
8. 비신자의 소속감	6 (2.0)	23 (7.8)	65 (22.1)	167 (56.8)	33 (11.2)	294 (100.0)
9. 종교와 교직 수행간의 갈등	2 (0.7)	30 (10.2)	59 (20.1)	171 (58.4)	31 (10.6)	293 (100.0)
10. 비신자의 소외감	5 (1.7)	59 (20.6)	76 (26.6)	117 (40.9)	29 (10.1)	286 (100.0)
11. 교육이념으로 인한 갈등경험	3 (1.0)	56 (19.0)	96 (32.7)	125 (42.5)	14 (4.8)	294 (100.0)
12.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	7 (2.4)	75 (25.6)	160 (54.6)	49 (16.7)	2 (0.7)	293 (100.0)

IV. 맺음말

가톨릭교회는 부모, 국가 그리고 교회를 통해 청소년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가톨릭학교는 그리스도적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그리스도는 가톨릭학교 교육활동 전체의 토대가 된다. 그리스도가 교육의 중심이 된다 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교육을 시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 안에 내재 되어 있는 자신만의 빛을 밖으로 끌어내는 교육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톨

릭학교가 가톨릭학교 답기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개개인의 고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교적 안목을 가질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톨릭학교의 구성원들이 가톨릭학교의 교육이념을 인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것은 가톨릭학교의 정체성을 찾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가톨릭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인식 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가톨릭학교의 교육이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이념을 아는 것과 이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신앙과 문화의 종합, 신앙과 교육의 종합이 강조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앙과 교직수행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신앙과 교육의 종합이 교육의 장에서 교리교육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제시한바가 있다.

가톨릭학교의 교육이념이 궁극적으로는 교사에 의해 실현된다고 할 때 가톨릭학교의 교사들이 이념을 실현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가톨릭학교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어 제도적인 환경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입시 경쟁이 주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교육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학교도 있다.

《참고문헌》

- 교황청 교육성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적 교육에 관한 선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5.
- 교황청 교육성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신앙의 증인들,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82.
- 성기선, 미국의 가톨릭 학교교육과 교육개혁 정책,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편, 한국의 가톨릭학교교육, 1999.
- 조영관,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의 역사,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편, 한국의 가톨릭학교교육, 1999.
- Beerens, D. R., *Evaluating Teachers for Professional Growth*, Sage Pub: California, 2000.
- Glickman, C. D., *Supervision of Instruction: A Developmental Approach* 2nd edition, 최희선, 윤기옥(역), 2000, 수업장학탐구:발달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1990.
- Gerald, Grace, *Catholic Schools: Mission,, Markets and Morality*, Routledge Falmer: London and New York, 2002.
- McDermott. E. J., *Distinctive Qualities Of The Catholic School*, National Catholic Educational Association, 1997.

Sergiovanni, T. J., *Moral Leadership: Getting to the heart of school improve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1992.

-
- 원고접수: 5월 25일 1차심사: 6월 10일 게재승인일: 6월 18일
연구자 소개
- ① 전공: 교육행정 / 소속: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직과정 수업전담초빙
교원
- ② 관심영역: 가톨릭학교교육, 교사교육, 교수학습센터
- ③ 주요논저: <교사의 질>, <장학 개념 적용을 통한 교수학습센터 발전에 대
한 연구>, <단위학교 책임경영과 교장의 지도성>
- ④ E-mail: clara90@catholic.ac.kr
-

The Mission of Catholic Schooling

Kim, Kyung-Y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mission of Catholic schooling and to survey the present state of the mission of Catholic schooling which was Catholic school member's perception about them.

The church's role is especially evident in Catholic school. These are no less zealous than other school in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in the human formation of young people. It is, however, the special function of the Catholic school to develop in the school community an atmosphere animated by a spirit of liberty and charity based on the Gospel. Teachers must remember that it depends chiefly on them whether the Catholic school achieves its purpose.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reveled that the Catholic school member's perception's degree about the Catholic schooling is high tendency. But knowing what and knowing how is separate issues. Therefor, teacher's performance is primary factor in the Catholic schooling.

Key words: Christian Education, Mission of the Catholic School, Catholic school teacher's role,